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4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1년 4월 26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해고금지-총고용보장! 불평등 체제 타파! 사회 대전환 총파업 성사!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

■ 5/1(토) 131주년 세계노동절대회

- 대전 : 10시 30분,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 청주 : 11시 00분, 상당공원
- 충주 : 11시 00분, 충주시청
- 옥천 : 11시 00분, 옥천버스

전세계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 노동절!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다. 전세계 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싸우는 투쟁하는 날이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벌인 5월 1일을 기억하기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이 매년 이 날 투쟁을 벌인다. 그런데 2021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투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알 수 없다. 2021년 세계노동절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날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코로나위기 극복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부터!

지부는 지난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위

기 극복의 시작은 노동자 생존권 보장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를 목표로 2021년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결의도 밝혔다. 지부는 올해 노동절 투쟁에서도 2가지 목표를 선포하고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더욱 심해지는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다. 해고금지-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정부와 재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함께 투쟁합시다! 5월 1일!

코로나 이후 대규모 집회는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노동절대회도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서 열린다. 지부도 노동절 당일 체온 체크, 손소독제 비치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오히려 더 절실하다. 절실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하자.